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7/16(火)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7/15(月) 11:00부터

※ 문의 : 기업정책팀 강석구 팀장(6050-3461), 김현철 선임연구원(6050-3462)

중소 절반 “혁신활동 추진경험 없어”

- 대한상의 조사 ... 최근 3년간 혁신활동 추진경험 ‘없다’(49%), ‘있다’(51%)
- 혁신활동 분야 ‘기술개발’(37%), ‘생산’(34%), ‘조직경영관리’(16%), ‘마케팅유통’(13%) 순
- 혁신활동 추진결과 ‘생산성 향상’(47%), ‘비용 절감’(20%), ‘조직·경영관리 효율화’(18%) 효과 거둬
- 혁신방법은 ‘회사 단독추진’(51%) ... ‘전문인력 부족’(33%), ‘자금 부족’(23%) 애로 호소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이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혁신활동을 추진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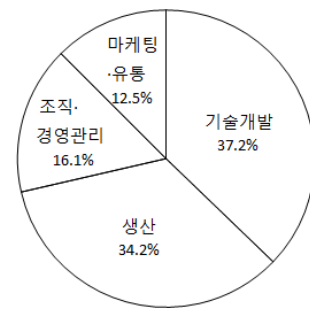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창조경제시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혁신활동을 추진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48.7%, ‘추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1.3%로 나타나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삼고있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혁신이란 기업이 기술개발, 생산방식, 조직구조나 영업활동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나가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전반적인 혁신활동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9.1%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이어 ‘높다’라는 응답은 32.5%, ‘낮다’가 8.4%로 나타나 혁신활동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은 기술 미흡, R&D 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혁신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면서 “지난 5월말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중소기업 생산성 순위가 전체 60개국 가운데 55위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생산성의 28%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언급했다.

한편 혁신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의 추진분야로는 ‘기술개발’(37.2%)과 ‘생산’(34.2%)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어 ‘조직·경영관리’(16.1%)와 ‘마케팅·유통’(12.5%) 등의 순이었다. 회사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혁신활동을 묻는 질문에도 ‘기술개발’(40.9%)과 ‘생산’(37.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조직경영관리 혁신’ 17.5%, ‘마케팅유통 혁신’ 3.9%>

<그림1> 혁신활동 추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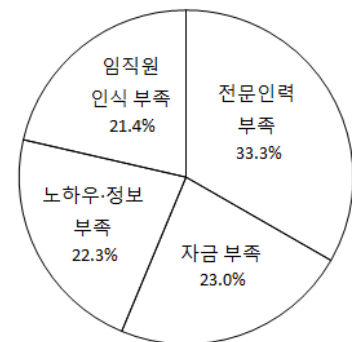


혁신활동 추진방법으로는 ‘회사 단독 추진’(50.7%)이라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한데 이어 ‘거래기업과의 협력 통한 추진’(18.8%), ‘외부 컨설팅기관 활용 추진’(18.2%), ‘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협력 통한 추진’(1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회는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데, 이들과 연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면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혁신활동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혁신활동 추진성과로는 ‘생산성 향상’(46.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비용 절감’(19.5%), ‘조직·경영관리 효율화’(17.5%), ‘매출 증가’(16.2%) 등의 차례였다.

<그림2> 혁신활동 추진 애로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전문인력 확보’(33.3%)를 꼽았고, 이어 ‘자금 부족’(23.0%), ‘노하우·정보 부족’(22.3%), ‘임직원의 인식 부족’(21.4%) 등이 뒤를 이었다.

혁신활동 관련 정부지원제도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한 적이 없다’(65.7%)는 응답이 ‘이용한 적이 있다’(34.3%)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그 이유로 ‘정부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라서’(46.7%),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서’(28.4%),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이용절차가 복잡해서’(24.9%)를 차례로 지적했다.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했다는 기업들은 가장 도움이 된 제도로 ‘기술개발비 지원’(43.7%)을 첫손에 꼽았고, 다음으로 ‘금융·세제 지원’(25.2%), ‘인력·교육 훈련 지원’(19.4%), ‘공정개선·정보화 등 기업역량강화 지원’(6.8%)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기타’ 4.9%>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관련 정책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개발 및 생산현장 역량 강화(33.3%)’, ‘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개척 지원(23.7%)’, ‘우수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17.0%)’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술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11.3%, ‘기업간 협력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9.7%, ‘창의성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5.0%>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42.3%)’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11.0%)’는 응답보다 많았다. <‘보통이다’ 46.7%>

대한상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창조경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홍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술개발을 비롯한 혁신활동은 생산성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중소기업의 절반정도만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산학협력이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여 타개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지원정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3. 6. 27 ~ 7. 3

□ 응답기업 : 중소제조업 300개사

□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조사